

표어의 긍정·부정적 표현을 통한 표현 교육 방향*

권순희**

<차례>

1. 서론
2. 선행 연구
3. 긍정 표현과 표현 교육
4. 표어 분석
5. 표현 교육의 방향

1. 서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표어를 대상으로 국어교육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긍정 표현의 힘을 고려하여 표현 교육을 논의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무심코 지나치기도 하고 눈여겨 보기도 하는 표어가 많다. 현수막이나 전자화면, 종이 등 표어를 알리는 도구도 다양하다. 그런데 표어의 많은 부분이 부정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정적인 표현을 일상 언어생활에서 찾아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빈도 면에서가 아니라 방법 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표어는 간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수집하기 쉽다. 이점에서 긍정 표현, 부정 표현을 비교하기에 표어가 적합하다.

* 이 연구는 2006년도 전주교육대학교의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전주교육대학교

네이버 백과사전에 의하면, 표어(標語, motto)는 사회나 집단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한 짧은 말이다. 예컨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망친다.”라든가, 환경보존협회의 “하나밖에 없는 지구, 우리가 잘 지켜내자” 등이 그것이다. 도덕적 내용을 담은 금언이나 격언과는 다르며, 광고 선전을 위한 캐치프레이즈¹⁾ 등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표어(標語)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를 살펴보면 “주의, 주장, 강령 따위를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라고 한다.

표어의 유래는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어의 영어 표현인 슬로건(slogan)은 프랑스어 ‘군대(slaugh)’와 ‘고함(gairm)’의 합성어로 ‘전쟁 중 소리치는 함성(war cry)’에서 유래(Denton 1980 : 10, 강태완 2000 : 7)하였다. 박영준(2001 : 276)에 따르면 본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고지대에서 위급할 때 집합 신호로 외치는 소리인 군인의 외침을 슬로건이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하였다. 표어 역시 구어적 표현에서 문어적 표현으로 발전하였다. 문어적 표현으로서의 표어는 서양의 무사들이 방패에 제명(題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학농민항쟁 당시 주문이나 가사 등의 주술적 메시지가 선전적 기능으로서 구호의 역할을 하였다(김치수 외 1999, 강태완 1986). 그러나 1862년 농민항쟁의 기록²⁾으로 추론해 보면 동학농민항쟁 이전부터 표어가 사용되었다. 그만큼 표어의 역사도 오래된 듯하다. 표어의 한 유형인 구호나 슬로건은 근대적인 매체가 등장하기 전부터 전파력이 강하고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강태완(2002)에 따르면 표어로 표현된 말은 “우리를 구속하는 행위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언어 사용자들 역시 표어는 짧은 문구이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강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 결과 실생활에서 표어를 살펴보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 적지 않으며, 이러한 표어는 표어를 읽는 사람에

1)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내세우는 기발한 문구.

2) 망원한국사연구실(1988)에서 고증한 자료 참고.

게 불쾌감을 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표어로 표현 교육 방향을 알아보는 작업은 살아있는 경험의 국어교육이다.

2. 선행 연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파급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표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미하다. 국내 연구로는 표어의 언어적 특성을 연구한 박영환(1985)과 강태완(2002)이 있다. 강태완(2002)에서는 표어가 지닌 특징을 “공중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문화적 기표이자 설득을 위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Lu, 1999 : 490)”으로 보고 오스틴의 언화행위론에 입각하여 표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다. 국외 연구로는 덴톤(Denton, 1980)과 루(Lu, 1999)의 슬로건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 경우에도 표어의 개념과 기능을 밝힌 정도이고 정치 슬로건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다룬 연구이다.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표어의 표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긍정적, 부정적 표현 차원에서 표어의 표현 개선 차원의 논의와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표현 수용 문제를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의 개론적인 문제를 살펴 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으로서의 타당성을 살핀 후 표어를 문식성 차원에서 분석하겠다.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경환 교수는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이 만든 ‘현대 한국어의 어휘빈도’ 자료집을 활용하여 감정 단어 434개를 추출³⁾한 후에 한양대 학생 123명에게 감정 단어에 대한 쾌와 불쾌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3) 최근 10년간 신문·잡지, 문학작품, 교과서에서 일정 빈도 이상 사용된 단어 6만 5000 개를 담은 자료집에서 순전히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 동사, 명사 434개를 추출.

결과 감정단어 434개 중 72%가 불쾌한 감정 표현이라는 응답 결과를 얻어 내었다(2006년 2월 16일자 미디어 다음).

우리나라 말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의 심리 상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는 흥미로운 사실을 시사해 준다. 불쾌를 나타내는 감정 단어가 쾌를 나타내는 단어보다 많다는 사실로 보건대 긍정적 표현보다는 부정적 표현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즉, 부정적인 표현의 밭이 긍정적인 표현의 밭보다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표(1996 : 116)⁴⁾에서 대학생 50명(남학생 25명, 여학생 2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하여 칭찬 화행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44.5%가 수락하기 책략으로 반응하였고, 화답하기 책략에는 12.9%가 반응하였다. 반면에 비껴가기와 거절하기에는 각각 22.1%, 18.8%가 반응하였다. 이 논문의 결과를 칭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수락하기와 화답하기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비껴가기와 거절하기는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긍정적인 반응은 57.4%이고 부정적인 반응은 40.9%라고 볼 수 있다. 이 수치의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본고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칭찬은 매우 긍정적인 말하기이다. “칭찬에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다. 칭찬에 대한 반응으로 모두가 긍정적으로 반응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언중들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의 언어 사용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다는 언어 실태를 대변하는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표현이 화자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논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반어적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범주화해서는 곤란하다.

칭찬이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킨다(Blanck 외 1984 ; 안신호 · 이상희 1988 : 265)는 실험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긍정적 표현 또한 내재적 동기를

4) 이원표(1996)는 원래 미국인과 중국인이 칭찬에 대해 반응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논문인 Chen(1993)을 검증하고, 비교하기 위해 구안된 논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인보다는 미국인의 반응에 가깝게 칭찬에 반응한다고 한다.

증가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칭찬은 긍정적 표현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박영준 외(2006 : 322-323)에서는 광고 언어를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내용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긍정적 내용 구성⁵⁾은 소비자가 광고를 접했을 때, 호감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도록 하는 전달 방식이며, 부정적 내용 구성은 사회적인 금기나 혐오스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전달 방식이다.

정상섭(2006)에서는 화자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양상을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대화자료 63개와 대학생의 대화자료 31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은 93.7%가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고, 대학생은 71%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일상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팽배한 부정적 태도를 지적하는 사례이다.

강태완(2002)에서는 전자정부 통합웹사이트인 www.egov.go.kr에서 표어라는 검색어로 관련된 웹페이지를 추출한 후 공공 기관에서 내걸고 있는 표어 261건을 분석하였다. 이 표어에 나타난 기본 가치를 소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소구⁶⁾가 138건, 부정적 소구⁷⁾ 38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사용한 양립형⁸⁾이 31건, 중립적인 경우가 54건으로 나타났다. 공공 기관에서 내걸고 있는 표어 중 긍정적 소구가 많다는 사실은 고무적이

5) 다음은 긍정적 내용 구성에 해당하는 광고이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건강한 식탁이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풀잎 위의 빗방울이 자연을 즐겁게 하고

내 아이의 노랫소리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편리하게

당신은 즐거운 일들만 생각하십시오

○ ○는 세상을 즐거움으로 기득 채우겠습니다

즐기세요 생활문화기업 ○ ○ (서울대동창회보 2006년 10월 15일자 11면)

6) “깨끗한 선거 문화 새천년의 밝은 희망”과 같이 ‘선거 문화’와 ‘새천년’에 ‘깨끗한’과 ‘밝은’이란 수식어를 부과함으로써 지시대상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표현 방식.

7) “내가 버린 담배꽁초 우리산림 폐허된다”와 같이 부정적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표현 방식.

8) “지키세요 안전의식 버리세요 설마의식”과 같이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대립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정적 소구와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사용한 양립형 소구를 볼 때 69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호소력 있고 설득력이 있는 표어는 수용자의 심리, 사회적 요구, 발전적 문화 창조를 고려한 표현이어야 한다.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수용자는 긍정적인 표현을 읽고 싶어 하고 수용하고 싶어 한다. 긍정적인 표현이 건설적이고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3. 긍정 표현과 표현 교육

일상생활에서 긍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 표현은 권순희(2003)에서 밝혔듯이 상거래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표현 교육에서 청자나 독자를 고려하라든지, 언어 수용자에게 상처를 덜 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직접 화법과 대비하여 간접 화법을 권장한다. 그러나 언어 수용자에게 상처를 덜 주기 위한 표현 중 더 적극적인 방법이 긍정적 표현이다. 밝은 면을 바라보는 긍정적 표현과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부정적 표현을 선택하게 하는 표현 교육을 논의할 수 있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찾을 수 있다.흔히 사용하는 예로,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좋으면 “좋아 죽겠네”, 싫으면 “싫어 죽겠다”가 있다. 연구자가 2006년 12월 전북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⁹⁾을 했을 때의 일이다.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는 표현과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는 표현의 차

9) 전주교대에서 운영하는 국어영재 20명 선발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학교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함.

이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면담하는 학생에게 자신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유형으로 표현하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40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이었는데, 40명 전원이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 그 중 30명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답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긍정적 표현이 더 좋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 부정적인 표현이 적지 않다. 또 그것을 듣는 청자¹⁰⁾의 입장에서도 부정적 표현을 들을 때¹¹⁾가 긍정적 표현을 들을 때¹²⁾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표현 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3.1. 긍정적 교육 철학과 교육 활동

긍정적 표현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것

-
- 10) 청자는 자아청자, 타청자로 대별된다. 자아청자는 화자 자신이 되고, 타청자는 참가자와 비참가자 등으로 구별된다. 그 중에서 자아청자가 자신이 한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청자이다. 같은 논리로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 자신이 제일 많이 긍정적인 표현을 듣는 청자가 된다(권순희 2001 참고).
- 11) 미국 뉴욕대 다이애나 시드티스 박사팀은 변연계가 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영상으로 증명했다. 연구팀은 ‘기능성 혁자기공명 단층촬영(fMRI) 장치로 욕을 들은 사람들의 뇌를 찍었다. 그 결과 욕을 들은 실험참가자들은 편도체 근처의 뇌(변연계)가 즉시 부풀어 올랐다(목정민, 2008 : 82). 더 자세한 내용은 Newscientist issue2635 참고 할 것.
<http://www.newscientist.com/channel/being-human/mg19626352.100-the-science-of-swearing.html>
- 12) 한 6학년 초등학생이 옆반 친구들은 “교통안전, 곧장 집으로, 선생님 사랑해요!(리듬감을 살려 말함)”라고 말하면서 하트모양을 머리위에 만들어 인사하고 하교한다고 하였다. 6학년이나 된 학생들에게 수준에 안 맞는 인사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인사하느니 전학 간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데 그 학생이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흡내낼 때 얼굴은 밝고 표정은 예뻤다. 표현에 따라 신체나 정신적인 부분의 반응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만화 영화에 더빙을 하는 성우들이 기쁨에 찬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쁜 얼굴 표정을 하면서 말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은 긍정적 교육 철학과 교사의 인식이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다음의 일화는 긍정적 사고, 긍정적 이미지, 긍정적 표현의 효과를 교사가 인식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한대학교 시교수가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지 한 달이 되던 날 딸아이가 국어시간에 했던 학습 활동을 이야기 하였다. 담임 선생님이 쪽지를 나눠 주시면서 “타이타닉호에 여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태운다면 누구를 태우겠어요? 한번 적어보아요”라고 말씀하시더란다. 그 아이는 생각나는 소중한 사람들을 써 내려갔다. 잠시 후 교사는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하게 되었어요 구조선에 7명을 태운다면 누구를 태울지 써보아요.”라고 했고, 연이어 구조선에 4명을 태운다면, 2명을 때운다면 누구를 태울지 차례대로 쓰라고 했다. 그 아이는 7명을 쓰라는 요구에 친구 2명, 엄마, 아빠, 동생, 할머니 그리고 본인을 썼다. 4명을 쓰라는 요구에는 엄마, 아빠, 동생, 할머니를 썼다. 2명을 쓰라는 요구에는 동생과 할머니를 썼다. 잠시 후 선생님은 “마지막 1명을 남긴다면 누구를 남기겠어요?”라고 질문하였다. 그 순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구조선에 남길 사람을 쓴다는 것은 나머지 한 사람을 바다 속에 빠뜨려 죽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울음을 터뜨리고 난 후 그 아이는 동생 이름을 종이에 적었다. 동생을 살린 것이다. 한대학교 시교수는 담임 선생님이 시행한 학습 활동에 불만을 느끼면서 자기 딸이 왜 동생을 종이에 썼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단다. “동생은 아직 어리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종이에 썼어요”라고 답변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시교수는 마음이 씁쓸하였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담임선생님은 위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구조선에 몇 명의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을 죽음의 상태로 방치하는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소중한 사람을 인식하는 긍정의 상황을 그려보는 활동이 아니라 죽음에 직면한 부정적인 상황을 그려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육 활동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에 대한 논의는 표현 사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긍정적

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2. 긍정적 표현과 심리학적 의학적 상관관계

긍정적 사고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적응에 상관관계가 있다. 엘리스(Ellis)와 베(Beck)의 관점에 영향을 받은 셀리만(Seligman, 1990)은 비관적, 낙관적 설명 유형의 차이가 학업, 스포츠, 직업에서의 성취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바 있다. 베(Beck)은 자기 자신, 타인, 세상,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인지구조가 우울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원인¹³⁾이라고 보고 부정적 인지구조와 우울간의 순환적인 상호작용을 언급하였다(Beck, 1976). 즉 우울한 사람들은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임의적 결론을 내리거나,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과일반화, 과장, 축소를 하기도 하며, 자신과 직접 관련 없는 일을 자신과 관련시키고 의사결정시 이것 아니면 저것의 절대화나 흑백논리를 채택하는 등의 부정적 인지오류를 하며(김계현, 1997) 더욱 우울증상을 지속해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인지체계가 심리적 정신 건강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인지구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부정적인 인지구조를 긍정적인 인지구조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우울이나 불안, 대인 관계상의 부적응을 치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피터슨 외(Peterson, Seligman & Vaillant, 1988)는 1940년대에 하버드대학을

13) J고등학교 3학년 R학생(여고생, 19세)은 J고등학교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으로 서울대 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1등을 했다는 R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6월에 슬럼프에 빠져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연구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R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난 실력이 부족해,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속내말을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이 본인을 눌러 이제는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인지구조가 우울을 일으킨 실제적 사례이다.

졸업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회상연구를 한 결과 비관적 설명 유형이 상대적으로 건강이 나쁜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이후 그들은 비관주의와 면역기능의 저하와의 관련성도 발견하였다(Kamen-Siegel 외, 1991 재인용).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 방식이 화를 표출하는 것과 건강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의학계의 논문¹⁴⁾에서 소개되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가 심리적 안녕, 신체적 건강, 그리고 건설적인 대처 능력과 관련이 있다.

3.3. 긍정적 표현과 언어 윤리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 중 언령관이 있다. 민족일이 국어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언어를 단순히 표현 수단으로만 논의하지 않는다. 언어 속에 반영된 마음과 생각과 문화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논의한다. 이태준(2004 : 21-22)은 마음과 생각, 감정을 넣어 생명력 있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려는 것은 마음이요, 생각이요, 감정”이라고 논의한다. 표현이란 뜻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태준(2004 : 225)에서는 “언어마다 문자마다 의(意) 이외에 감정과 체격과 신원이 있다. 뜻 이외에 그 언어, 문자가 발산하는 체취, 분위기, 그것을 선이용(善利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논의는 표현의 의미와 더불어 표현의 아름다움에 주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표현 교육에서 언어 표현의 미추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 미추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언어 윤리’¹⁵⁾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14) Gomez, M.A., Remor, E., Carrobles,J.A. “Optimistic-Pessimistic Explanatory Style, Anger Experience and Health Outcomes”
http://www.gallup-europe.be/PositivePsychology/Pos%20Psy/AMOROS%20GOMEZ%20Montserrat_Optimistic.ppt 참고할 것.

‘언어 사용 윤리’라는 용어로 명명할 수도 있겠다.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자신이 표현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언어 사용 윤리이다.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언어 수용자에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영향을 준 경우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언어 수용자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게 영향을 준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자. 어느 경우에 더 언어 윤리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표현이 언어 윤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긍정적인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보다 더 아름답다. 긍정적 표현에서 미학적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표현에 생명이 있고, 긍정적인 표현에 건설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살인하지 말라,¹⁵⁾ 도둑질하지 말라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이다. 살인과 도둑질은 왜 죄인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과 물건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의 기쁨과 긍정적인 사고, 건설적인 사고를 빼앗거나 방해하는 표현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 물건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빼앗는 것도 윤리적 책임이 있다. 법에 의한 통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1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0)에서는 사고력 유형을 크게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인지적 영역에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두었으며, 정의적 영역에 정서적 사고, 심미적 사고, 윤리적 사고를 두었다(박종훈, 2007 : 18). 윤리적 사고에 대한 명명의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언어에서 윤리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16) 경찰대 박경현 교수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행동하기 쉽다고 논의한다. ‘사랑하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표현보다 더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는 표현이다. 범에서는 최소한의 금지를 요구하기 위해 ‘~하지 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4. 긍정적 표현과 표현 장식

모든 언어는 표현하는 내용과 표현하는 방법, 즉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다. 내용과 형식에 관한 중요한 물음은 “내용은 미리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내용이 만들어진 후에 이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형식이 만들어졌는가?”이다. 뉴이(1980 : 106)에 따르면, 내용은 사용한 매개체의 수단에 의해서 새로운 대상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내용이 된다. 내용과 표현 형식이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내용과 표현 형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표현 내용은 의미와 관련이 있고 표현 형식 즉, 장식은 감각과 관련이 있다고 뉴이(1980)는 보고 있다.

연구자는 뉴이가 언급한 장식을 본고에서 살펴보는 긍정적 표현과 관련하여 ‘긍정적 표현을 위한 표현 장식’ 혹은 ‘긍정적으로 장식된 표현’ 측면에서 살펴보자 한다. 그동안 국어 표현 능력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리고 국어 표현 교육을 지도함에 있어서, 의미와 관련된 표현에 중점을 두었고 감각에 관련된 표현 장식에는 관심을 덜 두었다. 진정한 국어 표현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내용과 표현의 틀에 의미와 감각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장식이 함축된 표현 능력을 키워주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장식이나 표현 형식이라는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남는다. 내용과는 분리 된 겉표면적 장식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장식된 표현이란 표현에 색깔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색깔은 감정을 포함한 감각,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장식된 표현의 한 형태로 긍정적 표현을 들 수 있다. 긍정적 표현을 쓸 것인가 부정적 표현을 쓸 것인가의 문제는 밝은 색깔로 장식을 할 것인가 어두운 색깔로 장식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물론 긍정적 표현은 장식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사고와 감각에서도 긍정적인 사고 · 긍정적인 감각이 될 때 표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용과 형식을 구별하는 이론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내용과 형식을 구별하는 이론은 마치 생명체와 생명체의 환경이 구별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 이론이나 다름없다. 의미를 형식화하는 관념론자는 내용과 형식을 구별한다. 그리고 경험론자는 감각적 특질의 우위를 구하기 위하여 구별을 시도한다. 그러나 듀이와 같이 심미적 경험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기보다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심미적 경험론자들에 의하면, 예술 작품은 경험의 원료를 형식을 통하여 질서를 부여한 내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심미적 경험론자의 견해를 국어 표현에 적용해 본다면, 표현이란 경험을 원료로 형식을 통하여 질서를 부여한 내용을 만들어 내는 행위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형식을 통하여 내용을 만들어 낼 때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표현에 장식을 하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표현이란 경험을 원료로 형식을 통하여 질서를 부여한 내용을 장식하여 만들어 내는 행위라고 재 정의하고자 한다.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으로 마무리하는 작업 과정을 거칠 때 진정한 표현 능력이 내비쳐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장식은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 중에서 선택 표현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4. 표어 분석

표어는 개인의 아이디어이면서 국어공동체에게 공적인 홍보 역할을 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개인의 국어 발전과 공동체의 국어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다. 표어는 개인의 표현 능력과 수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국어 공동체의 표현 능력과 수준을 대변하기도 한다. 또한 표어는 한 사회의 문화와 국민의 의식을 현재라는 시점에서 반영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시공간적 요구에 대응하여 표어로 표현하고 이해한다. 표어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문제는 곧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표어는 대부분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수집된 것이다. 그러나 타 지역의 표어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 또한 타 지역의 표어도 일

부 소개하였으며,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표어도 일부 소개하였다. 수집 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이며 집중 수집 기간은 2006년 4월에서 2006년 6월까지이다.

표어는 텍스트 차원에서의 문식성, 표어가 사용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차원에서의 문식성, 표어를 접하게 되는 사회적 주체 즉 인간 차원에서의 문식성 등 3차원적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다. 분절적인 분석보다는 종합적인 분석이 바람직겠지만 연구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각을 비판적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성찰적 문식성¹⁷⁾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비판적 문식성이란 여러 가지 매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며 이를 주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우한용 외 2003 : 6)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어에 나타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비판 분석하겠다.

문화적 문식성이란 담화나 텍스트에 나타난 문화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국어교육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사회 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텍스트의 소통과 담화의 소통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어에 나타난 사회적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 문화적 맥락 차원의 담화 소통을 분석하겠다.

성찰적 문식성이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자체에 대해서도 성찰적인 시선을 던지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와 문화적, 개인적 입장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성찰하는 시각을 말한다. 표어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표현에 드러난 사회적 의미를 읽어보고, 성찰해 보는 작업은 언어 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성찰적 문식성 수준까지 나아갈 때 국어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표어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주체 즉, 인간 차원의 문식성을 살펴보겠다.

17) 문영진(2007 : 29)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찰적 문용력’이라는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문용력이란 literacy를 번역한 말로, 텍스트 생산의 측면과 다른 텍스트 체험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려는 의도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연구자는 literacy의 일반적 번역어인 문식성을 쓰고자 한다.

4.1. 긍정적 이데올로기 철학과 표어

표어는 우리의 문화와 사회상을 반영¹⁸⁾하고 있다. 특히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표어에 나타난 이데올로기가 긍정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다음 예를 보자.

(예 1)¹⁹⁾ 당신의 얼굴을 책임집니다. 증명사진 완벽 수정 5000원, 옛날 사진 완벽복원

이 표어는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는 성형 수술과 같은 것으로만 욕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편집 기술과 상품화로 이어진다. 이데올로기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데올로기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긍정적인 표현을 하게하는 지지 역할을 한다.

다음은 외국인파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어이다.

(예 2) 베트남 처녀랑 결혼하세요 100% 후불제, 초혼, 장애인, 자식 있으신 분(2006. 3. 16. 전주 색장동 삼거리, 전주 다가동 천변)

이 표어에는 물질만능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경제력을 무기 삼아 베트남 처녀들을 사울 수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표어이다. 관점에 따라 이 표

18) 반대로 표어가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예술작품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베토벤은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 옆집 문을 연이어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에 영감을 얻어 운명교향곡을 작곡하였다고 한다(벤파터슨 저, 전상현 역 1994 : 34). 네 번 두드리고는 잠깐 멈추고 그리고 다시 네 번을 두드리는 누군가의 문 두드리는 소리는 그의 풍부한 음악적 재능 속에서 네 박자의 음으로 변해서 운명교향곡을 탄생시킨 것이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운명교향곡을 탄생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고 운명교향곡이 음악계에 큰 영향을 주었듯이 이와 같이 일상 경험으로 접하는 문화와 표현과의 영향 관계는 볼 수 있다.

19) (예 1), (예 2)는 염밀하게 따지면 광고성 표어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예시로 언급한다.

어는 불쾌의 감정을 그대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²⁰⁾가 들어가는 요즘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종관과 여성관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이데올로기 문제는 중요하다. 표어에 반영된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편견을 내포하고 있다면 표어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표현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긍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에 만연된 편견의 이데올로기를 개선하는 작업은 긍정적 표현 문화를 창조하는 기초가 된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유세 기간에 내걸렸던 표어이다.

(예 3) 공천현금 등 중대 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5억원,²¹⁾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향응 받으면 과태료 50배—공정선거관리위원회—(2006. 5.
21. 전주시 동서학동, 남노송동)

이 표어는 선거의 부정 방지를 홍보하고자 만든 것이다. 중대 범죄의 예로 공천현금을 들고 있고, 금품, 향응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눈 감아 주어서도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과태료 50배와 포상금 5 억 원이라는 돈으로 환산하여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횡금만능주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돈과 연관이 되니까 선거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부추긴다. 자본이 도덕보다 상위에서 도덕을 좌우하는 이데올로기 구조를 나타낸다. 건전한 계몽의 목적으로는 “돈보다 귀한 깨끗한 선거 후손에게 물려줍시다.”나 “아이에게 뜻밖한 선거 문화 물려줍시다.” 등의 표현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밖에도 선거기간에 내걸린 부정적인 표현의 표어와 연구자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쓴 표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 4)

• 깨어있는 신고정신, 불법선거 막아낸다.(2006. 5. 18.²²⁾ 전주시 동서

-
- 20) 자세한 논의는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고.
- 21) 표어에서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동)

부정선거 방치하면 부패정치 태어난다.(2006. 5. 15. 전주 송천동 GS마트 근처)

→ 공정한 선거정신 우리정치 밝게한다.(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²³⁾

→ 공정한 선거, 공정한 정치

- 선거 날은 정치인들 심판 날 부정한 선거가 나라를 망친다.(2006. 5. 15. 전주시 효자동)

→ 선거 날, 내손으로 나라의 희망을 찾읍시다.

2006년 5월 선거 기간에 수집한 다수의 긍정적인 표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밝은 세상 만들기—소중한 나의 한 표

민주시민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날 pride²⁴⁾ 5. 31.(2006. 5. 17. 전주시 서신동)

작은 투표용지 한 장에 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나부터 공명선거 다 함께 밝은 미래

후보자는 올바른 정책으로 유권자는 깨끗한 투표로

함께 지킨 공명선거 함께 누릴 밝은 미래

당신의 한 표가 한국의 얼굴입니다. (2006. 5. 20. 전주시 동서학동)

공명선거와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문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른 종류의 표어와는 달리, 부정 선거와 선거 불참 시 예상되는 결과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선거참여를 호소하는 긍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와 낙선자들이 내건 표어이다. 당선자들은 당선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각오를 드러내는 표어를 내걸었고, 낙선자들은 당당하지 못한 표현 예를 들면, ‘초라한 외출’, ‘성원에 읍니다’ 등의

22) 수집한 날을 위주로 밝힘. 보통 표어는 1주 이상 내걸리게 된다.

23) → 표시는 연구자가 부정적인 표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제시할 때 사용할 기호이다(이하 동일하게 적용). 유통되는 표어를 참고하여 바꾼 경우도 있다.

24) 2000년 이후 표어에서도 외국어 사용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어를 만들었다.

(예 5) 당선자 표어

- 시민 여러분의 사랑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겠습니다.(2006. 6. 4. 지방선거 후 중앙시장근처)
-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사랑 가슴 깊이 간직하고 보답하겠습니다.(2006. 6. 4. 서신동)

(예 6) 낙선자 표어

- 23년만의 초라한 외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06. 6. 3. 지방선거 후 시외버스터미널근처)
→ 23년만의 용기있는 도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낙선에 울지 않고 성원에 읍니다.

선거 입후보자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당당한 외출, 용기있는 도전이라고 평할 수 있다. 초라한 외출이라는 부정적 표현에는 당선되거나 성공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실패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데올로기가 기저에 깔려있다. 실패했을 때에도 긍정적 의미를 찾고 결과 이면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퍼지도록 표어가 바뀌어야 한다.

4.2. 긍정의 사회 태도와 표현

표어는 우리 사회를 향한 심리와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반대로 사회를 향한 심리와 태도는 긍정표현에 영향을 준다. 먼저 표현 형식과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예 7) 문화전당건립계획 수정하라.(2006. 4. 소리문화의 전당)

(예 8) 군부대와 경찰병력은 평화의 땅 평택에서 당장 떠나라!

(예 9) 4천만 국민의 생명과 맞바꾸는 게 국익인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전 당장 중단하라!!

(예 10) 반민주 어용·무능·폭력교수 복직이 웬말이냐!! 특별법을 개정하라!!—민주○○대학교²⁵⁾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2006. 4. 광주○○대학교)

(예 11) 천문학적 국부유출 전국민이 분노한다!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라!—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 외환은행 지부—

(예 7)~(예 11)의 밑줄친 부분과 같이 표어에서 명령법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투쟁적인 표어 문구의 경우는 명령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명령법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할 때 쓰는 어투이다. 사회적 권력의 문제로 보면 권력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지시하거나 권력 없는 자가 권력 있는 자에게 필사적 쟁취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표어는 청유형과 같은 표현으로 권력이 있는 여유를 나타낼 수 있지만 민중들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격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 이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격한 표현을 쓰는 것이다. 표현 선택을 사회 권력 관계로 볼 수 있다. 네루(곽복희, 남궁원 역, 1999)는 위선보다는 조야한 방식이 낫다고 주장하며 민중들은 조야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회와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윤리적 인성의 문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전자가 심충을 이해하는 일종의 인식론적 이해라면, 후자는 현상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교육론적 이해라고 볼 수 있다. 박인기(2006 : 13)에서는 언어의 가치 작용은 일차적으로 언어 윤리를 학습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버마스는 생활 세계에서 문화를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윤리의 바탕 위에서 가능한지를 보여준다(하버마스, 장은주 역, 1995 : 178-179 ; 박인기 2006 : 7).

또한 명령법은 다른 서법에 비해 간명하다.²⁶⁾ 간결성 때문에 명령법을

25) 등록금 인상 거부나 임용고시 증원 요구 등으로 학생회와 대학교가 대립하는 경우에도 적군과 싸우는 듯한 대립의 표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생운동에서 대학생들이 쓰는 표어 문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순화할 필요가 있다.

선호한다. 그러나 “문화전당건립계획 수정합시다”, “평택에서 함께 모여 우리의 평화를 주장합시다”와 같은 부드러운 청유형의 말투는 힘을 얻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이면서 부드러운 표현 보다는 부정적이고 강한 느낌의 표현을 선호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자²⁷⁾는 제자에게 자신의 입 안을 보라고 하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했다. 제자가 답변하기를 “잇몸과 혀가 보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노자가 말하기를 “강한 이보다 부드러운 혀와 잇몸이 마지막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한 것이 더 강하다는 표현을 했다.

대치와 투쟁의 어투는 집단 운동을 하는 경우에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투쟁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내걸고 있는 표어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이다. “썩은 국회의원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노무현 열린우리당 자폭하라”,²⁸⁾ “허상만 퇴진하라”²⁹⁾ 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폄하하고 있다. 또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의미인 ‘사수’와 빼앗아 가짐의 뜻인 ‘쟁취’라는 전쟁 용어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어 사용에 있어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줄이고 긍정적이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12) 우리 농업 잡아먹는 열린우리당³⁰⁾ 규탄한다.

(예 12-1) →우리 농민 잘 살도록 정부가 앞장서라.

(예 12)는 분노와 미움이 언어 사용의 기저에 깔려있다. 끝없이 치닫게 되는 격한 감정의 표출과 대립이 사회에 대한 태도가 되어 표현된 것이다. (예 12-1)은 격려와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표어를 바꿔본 것이다.

26) 직접화법 측면에서도 간명하다.

27) 노자의 도덕경 참고

28) 대통령이 교체된 2008년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 표어가 내걸렸다.

29) 표어는 <http://www.gonong.org> 고창 농민회 2006년 6월 현재 참고. 부정적이고 전투적인 표어가 다수이다.

30) 정당명은 표어가 사용된 2006년 6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올해도 농사짓자”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농민의 문제들을 호소하는 능력이 있다.

(예 13) 올해도 농사짓자!



출처 : <http://www.gonong.org/bbs/view.php?id=muri&no=102>에서
2006. 6. 9. 현재

투쟁 문구 특유의 거친 표현은 자제하면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하고, 투쟁한다는 내용도 표어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대치와 분열이라는 틀,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논의하는 틀이 우리의 표어 문화에 드러나는 것이다. 투쟁 일색의 거친 명령조의 표어 일색에서 긍정적인 글은 오히려 더 톡톡 튀는 예쁜 글이 될 뿐만 아니라 호소력을 얻을 수 있다.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사랑과 화합, 격려의 문구를 통한 결집에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와 같은 공익광고 협의회의 광고 문구가 길거리의 표어 문구로 내걸리기도 한다. 표현이 정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소수 단체만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걸쳐 표어도 사랑과 화합, 격려의 문구로 다듬어져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태도, 심리, 윤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4.3. 표어 사용자 환경과 긍정적 표현

직업에 따라 부정적 표현의 표어 사용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경찰 청, 검찰청, 범죄예방관련 단체, 교통사고 예방 단체에서 내건 표어 중 다수가 부정적인 표현이다. 범죄나 교통사고 등의 내용을 담은 표어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다수 나타난다. 범죄 예방을 내용으로 표현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현상을 보고 겪는 직업군의 현실일 수도 있다. 긍정적인 현상을 보고 겪는 직업과 부정적인 현상을 보고 겪는 직업의 차이만큼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에도 차이가 나서 흥미롭다. 범죄와 사고는 다른 소재에 비해 어두운 면이 부각되기 쉬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래 지향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비행 청소년 문제와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표어이다.

(예 14)

- 외면하면 비행청소년 보호하면 나라기둥(2006. 1. 3. 전주천 주변)
- 선도하면 나라기둥 외면하면 비행청소년(2006. 5. 28 김제역 부근, 전주 솔빛중학교 정문)
- 남의자녀 방치하면 나의자녀 오염³¹⁾된다.(2006. 3. 전주천 주변)
→남의자녀 사랑하면 나의자녀 사랑받는다.
- 지나쳐버린 청소년 비행, 내 자녀를 망칩니다.—전주지방경찰청 / 범죄 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2005. 12. 29. 전주천 도토리골교 근처)
→관심으로 키운 청소년, 내 자녀의 동역자입니다.

(예 15)

- 학교폭력 추방하여 밝은사회 이룩하자.(2006. 4. 3. 전주중학교 정문)
- 어른들의 무관심이 학교폭력 부추긴다.(2006. 4. 6. 전주시 송천 방범 초소)
→어른들의 관심이 청소년문화 바꾼다.

31) ‘방치’, ‘오염’이라는 비인격적인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다.

- 학교폭력 추방하여 앞당기는 정의구현(2006. 5. 12. 전라고등학교)
→ 청소년에 대한 사랑,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예 16)

- 아름다운 세상, 청소년이 주인공입니다.(2006. 5. 동서학동사무소)

“외면하면 비행청소년”이라는 표현으로 현재의 문제점, 실태를 지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청소년, 사랑으로 보호하면 나라기둥”과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어휘는 표어를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할 수 있어 좋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현재의 문제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표현은 일부분만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면하면 비행청소년”이라는 표현과 “보호하면 나라기둥”이라는 표현에서 앞부분은 부정적이고, 뒷부분은 긍정적이다. 일부만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표현에서 더 발전하여 실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의 표현을 구안할 수 있다. “격려하는 말 한마디 청소년미래 밝아진다”, “칭찬하는 관심 속에 청소년은 우리미래”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표현은 발전된 긍정적 표현이다.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표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 17) 교통문화 선진국, 그 시작은 바로 당신입니다.(2006. 5. 5. 전북외
곽 고속도로 톨게이트)

(예 18) 5대 교통 악습 추방하여 교통사고 확 줄입시다.(2005. 12. 전주 지
방경찰청 근처, 2005. 12. 서울 명동 육교)

(예 17)은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은 평범한 문구이다. ‘내가 아니면 남이 하겠지’라는 의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문구이다.

기준에 자주 접했던 공익광고 문구와 비슷하다. (예 18)은 ‘악습’, ‘추방’, ‘획’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격려와 금지라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예 17)은 격려 문구이고 (예 18)은 금지 문구이다.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개선하는 데에는 (예 17)과 같은 긍정적인 격려 표현도 필요하고 (예 18)과 같은 극단적인 금지 표현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있듯이 보다 부드럽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의식, 행동 개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교통악습 없는 세상, 교통사고 없는 세상”이라는 부정적 표현보다는 “도로위의 좋은 습관 나부터 시작하자”라는 격려 문구가 들어간 긍정적 표현이 바람직하다.

교통문화에 관련된 표어를 긍정적 표현, 반긍정·반부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으로 나눠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 19) 긍정적 표현

- 한사람의 거리질서 열사람이 웃고간다
- 엄마아빠 준법정신 새싹들이 본받는다
- 내가지킨 교통질서 나의안전 나라발전
- 준법정신 솔선하면 웃음피는 우리거리
- 차선지킨 바른마음 신호살핀 밝은마음
- 마음마다 교통질서 손길마다 안전운전
- 마음속의 질서정신 행동으로 꽂피우자
- 양보하는 미덕속에 새질서가 확립된다
- 선따라 가는길 세계로 가는길
- 마음모아 교통질서 손길모아 안전운행
- 질서도 내가먼저 양보도 내가먼저
- 천하보다 귀한목숨 질서지켜 보호하자
- 급할수록 침착운행 바쁠수록 조심보행
- 질서속에 웃음있고 안전속에 행복온다
- 차례차례 타는습관 다져지는 교통질서
- 거리질서 바로지켜 일등국민 되어보자
- 팔팔년의 부푼꿈 새질서로 꽂피우자
- 느긋한 안전운전 흐뭇한 명랑사회

- 중앙선은 생명선 신호등은 생명등
- 질서지켜 운전하면 좁은길도 넓어진다
- 바다에선 구명대 도로에선 안전벨트
- 몸에는 안전벨트 마음에는 양심벨트
- 교통질서 지키는일 내생명 지키는일
- 조마조마 횡단보도 도리도리 살펴가자
- 정치신호는 한 박자 빠르게…

(예 20) 반긍정·반부정적 표현

- 안전위해 만든법규 내가지켜 사고막자
- 바른신호 바른질서 내가지켜 사고막자
- 끼어드는 부끄러움 양보하는 아름다움
- 행복주는 조심운전 불행주는 방심운전
- 유아사고 부모책임 부모부터 질서교육
- 지킨만큼 안전하고 어긴만큼 위험온다
- 급히가면 사고의길 살펴보면 안전의길
- 몰래어긴 교통위반 신호등은 알고있다
- 10부제로 하루불편 9일동안 편한교통
- 출퇴근길 대중교통 사라지는 교통체증
- 편리해진 휴대전화, 운전중엔 저승사자

(예 21) 부정적 표현

- 방심속에 무단횡단 불행속에 평생후회
- 한잔두잔 음주운전 가정파괴 주범된다(2006. 5. 21. 전주 문병 원 근처)
- 한잔두잔 몰래운전 지장잃고 가정불행(2008. 6. 2. 전주 한국은행 사거리)
- 교통법규 무시하면 나의인격 무시된다(2006. 4. 9. 전주 이동교 근처)
- 차안의 소주 한병은 죽음의 지름길(2006. 5. 28. 전주—부안 간 도로변)
- 한번어긴 교통신호 평생토록 가정불행(2006. 5. 28. 전주—부안 간 도로변)
- 음주운전 평생후회 지장잃고 가정불행(2006. 4. 3. 전주북부경

(찰서 앞)

- 나하나의 무질서가 만인에게 피해준다
- 설마하는 음주운전 귀한생명 잊아간다
- 사고장소 따로없고 사고시간 예고없다
- 내가권한 한잔술이 친구생명 잊아간다
- 음주운전 우리아빠 잠못자는 우리엄마
- 쉽게어긴 교통질서 쉽게잃는 나의생명
- 비틀비틀 음주운전 아슬아슬 당신생명
- 양보앞에 혼잡없고 질서앞에 사고없다
- 나쯤하는 불법주차 교통혼잡 불러온다

출처 : <http://cafe.daum.net/mountanavy/86t/71>에서 2008. 4. 13. 현재

위의 교통안전 표어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교통안전 표어는 대부분 부정적인 표현이었다. 전주의 변화가 사거리에 “한잔두잔 몰래 운전 직장 잃고 가정불행”(2008. 6. 2. 전주시 한국은행 사거리)이라는 표어는 다음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표어이다.

손해보험협회와 경찰청은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이날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연말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한잔두잔 몰래운전 직장잃고 가정불행’ 등 음주운전 금지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홍보활동을 했다(인터넷 매일경제 2005년 12월 22일자).

다음은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본 것이다.

(예 22)

한번 어긴 교통신호 평생토록 가정불행(2006. 5. 28. 전주~부안 간 도로변)

(예 22-1)

- 내가 지킨 교통신호, 우리 가족 행복 보장
- 내가 지킨 교통질서, 웃음으로 돌아온다.(2006. 6. 금암동)
- 내가 지킨 거리질서, 새싹들이 본받는다.(2006. 4. 13. 제주 시내)

(예 23)

- 안전벨트 착용은 이승의 길, 안전벨트 미착용은 저승의 길—도로교통안전협회—(2006. 4.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앞 거리)
→ 안전벨트,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열쇠
- 과속, 당신의 생명을 앗아갑니다.—도로교통안전협회—(2006. 2. 전주—서울간 고속도로 입구)
→ 안전속도, 당신을 지켜줍니다.
- 잘못된 운전습관 내 아이가 따라한다.
→ 좋은 운전습관 내 아이가 본받는다.
→ 저도 크면 아빠처럼 운전할래요—도로교통 안전협회—(2000. 4. 서울여대 근처 육교)
- 편리해진 휴대전화 운전 중엔 저승사자 (2006. 1. 전주—오수간 도로)
→ 편리해진 휴대전화 운전 중엔 불편해요.
- 그어야 할 선(線), 음주 과속 무면허—전주시청—(2006. 4. 17. 전주 백제로)
→ 지켜야 할 선(善), 교통질서, 안전운행
→ 마음모아 교통질서 손길모아 안전운행
- 나 하나님의 교통사고 온 가족의 평생 불행(2006. 6. 5. 광주 진월동 육교)
→ 나 한 명의 교통안전 온 가족의 평생 행복

(예 22)와 (예 23)에서 연구자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교통안전 표어에 특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22)는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표어인데, 모두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예 22-1)에서 ‘어긴다’는 표현을 ‘지킨다’는 표현으로 바꾸고, ‘가정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보았다. 부정적 표현보다는 긍정적 표현이 마음을 편하게 한다.

(예 24) “지선아, 사랑해~”—도로교통안전협회—(2005. 12. 전주시 남천교 앞 횡단보도)

처음 이 표어를 접한다면 유치한 프러포즈 정도로 해석을 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선이가 ‘정지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기발하고

신선한 발상의 표어라고 생각할 것이다. 도로교통안전협회라는 문구가 교통 표어임을 알려준다. 이 표어는 2005년 12월에 한동안 남천교 근처에 내걸린 것이다. 연말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문구 작성에 한 몫 했을 것이다. 낯설게 표현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한 표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어는 내용 전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표어는 호국 표어에서도 발견된다. 6월에 많이 내걸리는 호국 표어는 국제 정세나 통일 정책과도 연관 되기 마련이다.

(예 25)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임이 간 길 호국의 길 우리 갈 길 통일의 길(2006. 6. 1. 전주 시
내 여러 초등학교 교문)

(예 26) 호국보안 소홀하면 6·25가 다시 온다. 전주애향군인회(2006. 6.
1. 풍남초등학교 4거리)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겠지만 군대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표어에서 특히 부정적 어감의 표현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예 26)은 ‘호국보안 소홀=6·25 재발’이라는 직접적인 표어이다.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표어이다. 군대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나오는 표어 같다. 북한 공산당을 뿔이 난 빨간 도깨비로 묘사했던 시절이나 나올 법한 표어이다. 북한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표어로 바꿔보면 좋을 것이다. 북한과의 핵별 정책으로 화해의 시대인 요즘에 냉전을 부추길 수도 있는 표어이다. 6·25가 다시 온다는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젊은 세대들도 호국보안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현재에 필요한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 25)는 이점에서 긍정적인 표어의 사례이다.

표어 중에는 아름다운 표현, 긍정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표현이나 부정적인 가정법이 들어간 표현이 많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각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좀 더 희망차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언어 사용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된 표현에는 다양한 것 이 있다. 그동안 표어는 뭔가 화끈하게 와닿는 맛이 있어야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표어를 만들 때 이제는 수용자 입장에서 보기 좋고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표현을 선택하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격려의 표현, 긍정적 가정법을 예로 든 표현 등 긍정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고 더 효과가 있다. 부정적인 표현이나 어두운 이미지의 언어는 달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부정적으로 남는다.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표어로, 힘이 있고 개성과 창의성이 드러난 표어로 바꿔본다면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같은 표현이라도 표어 생산자와 수용자를 고려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의 표어를 살펴보겠다.

(예 27) 오늘도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안전을 기원합니다.(2007. 3. 4. 전주 덕진구 북일초등학교 앞 아파트 건설현장)

(예 28) 빠른 작업 자랑 말고 안전 작업 자랑하자.(2007. 3. 4. 전주 덕진구 북일초등학교 앞 아파트 건설현장)

위 표어는 같은 현장 내에 걸려 있는 것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예 27)은 땀에 젖은 인부가 이 표어를 보며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미소 지으며 다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가 하면, (예 28)은 뼈약볕 아래 정신없이 서두르며 자재를 나르고 있던 인부가 우연찮게 이 표어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는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경각심을 일으키는 방법이

오직 자극적이고 부정적이며 강한 느낌을 주는 단어를 쓰는 것에 있지 않다. (예 27)에서는 가족이란 단어를 넣어 개인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 (예 28)은 “빠른 작업 자랑 말고”라는 부정표현이 “안전작업 자랑하자”라는 표현 앞에 나옴으로써 안전 작업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다음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다.

(예 29) 기본원칙 안 지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2006. 6.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현장)

(예 29)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위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기본 원칙 준수하기,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안전을 격려하는 표어를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자라나는 어린이까지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표어의 수용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어를 만드는 문제는 교육적인 고려와 함께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어가 사용되는 시간적 공간적 환경과 수용자 환경이 표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긍정적 표어라 하더라도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때문이다.

(예 30) 엄마,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써요.(2006. 5. 5. ○○초등학교 수돗가)

초등학생이 보는 표어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정겨운 말투의 표어를 사용한 듯하다. 표어는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초등학교에 어린이날 놀러 갔다가 한 초등학생이 물을 틀어놓은 채로 가는 것을 보았다. 불러서 잠그고 가라고 하면서 “이런 좋은 표어도 적혀 있는데 물을 낭비하면 안 되지.”라고 하였다. 그 초등학생이 대답하기를 “우리 엄마 물 아껴 쓰세요.”였다. 이 경우에는 “나는 수도꼭지를 잘 잠그

는 착한 어린이”라는 표어가 더 적절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몽 대상자인 학생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표현임에도 그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긍정적인 표현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 본고에서 살펴본 긍정적인 표현에 대한 고찰은 표현 선택 중 한 가지에 대한 고찰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표어로 전북 홍보 표어를 살펴볼 수 있다.

(예 31)

- 자랑스런 전북을 만듭시다. (2005년, 2006년 전주시 시내버스 후면 홍보물)
- 새만금 사업 대법원 상소심 승소 전주의 미래, 전북의 희망입니다.(2006. 5. 22. 전주시 동서학동사무소)

(예 32)

- 3대 악습 추방하여 강한 전북 만듭시다. (2005년, 2006년 전주시 시내버스 후면 홍보물)
- 3대 범죄 추방하자.(2005. 12. 택시 후면 홍보물)
- 3대 범죄(교통, 사기, 폭력) 추방하여 강한 전북 만듭시다.(2005. 12. 택시 후면 홍보물)
- 허위진정 투서 없고 서로 믿는 밝은 사회 건설하자.—전북애향운동본부 (2005. 11. 21. 전주 다가교 근처)
→감사와 칭찬으로 서로 믿는 밝은 사회 건설하자.

(예 33)

-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전라북도 교육청—(2006. 5. 22. 전라북도 교육청)

(예 34)

-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2006. 5. 22. 한국은행 앞)
- 한국 경제! 봄과 함께 일어나자!(2005. 4. 3. 정읍시 톤페이지 근처)
- 2005년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전주시—(2005. 1. 전주 리베라호텔 근처 육교)
- 2005년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 1. 전주시 톤페이지)

이트)

- 전주시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전주시
–(2006. 2. 21. 전주 리베라호텔 근처 육교)
- 전주시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2006. 1. 전주시 톨케이트)

(예 31)은 긍정적인 표현이며 평범한 표어이다. (예 32)는 전북의 문제점으로 3대 악습, 3대 범죄, 허위진정 투서 등을 제시하고 이를 추방하여 강하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표어이다. 어디에나 사회의 어두운 면은 있기 마련이다. 교통, 사기, 폭력 분야에서 문제가 없는 사회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예 32)의 표어는 오히려 3대 범죄가 전북의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를 뿐이다. (예 33)와 (예 34)는 시대적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어이다. 이와 같이 표어는 언어 사용자의 환경을 반영한다.

그밖에도 음식, 금연, 경제 등의 소재를 다룬 부정적인 표어와 긍정적인 표어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식과 관련하여 내걸린 표어를 살펴보자.

(예 35) 남긴 음식 나의 잘못, 버린 음식 엄마 잘못 (2006. 4. 30. 전주 금암동 음식점 앞)

(예 35-1)

- 낭비 없는 음식 문화 행복 열매 약속한다.
- 적당한 식사준비, 전부 먹는 일뜰 가정

(예 35)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표어이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남은 음식을 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예 35)는 잘못한 것을 꾸중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표현이고 (예 35-1)은 권고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다음으로 흡연과 관련된 문구이다.

(예 36)

- 흡연은 죽음입니다.
→금연은 건강입니다.
- 담배,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2006. 4. 6.)
→금연, 장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뾰오얀 담배연기 알고보니 저승사자(2006. 4. 20. 모자보건센터)
담배와 함께 타 들어가는 가족들 심정(2006. 4. 10)
→금연과 함께 퍼져가는 가족들 웃음소리
- 담배 한 개피로 망가지는 우리 몸(2006. 4. 27. 전주 이재한 내과 앞)
→용기있는 금연으로 활력찾는 우리 몸
-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는 담배 한 개피(2006. 4. 3. 송천동 여의주 약국)
→예쁜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는 아빠의 금연
→아빠 저희에게 맑은 공기를 돌려주세요 –전주시청–(2006. 5. 14. 전주 금암초등학교 앞)
- 흡연은 죽음의 길
→금연은 건강의 시작
- 담배를 피우는 순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늘어납니다.(2006. 4. 3. 전주시 보건소)
→담배를 끊는 순간 우리의 행복과 웃음은 늘어납니다.
- 담배,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연기입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끊습니다.
→금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첫 걸음입니다.

(예 36)은 흡연을 ‘죽음, 저승사자, 망가지는 우리 몸’ 등의 어휘와 연관시켜 표현한 부정적인 표어이다. 이 표어에서는 흡연이 금지사항이고 금연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금연(禁煙)이 주어가 될 때 긍정적 표현을 만들 수 있는 사례이다. → 표시된 표어는 금연이라는 어휘를 앞세워 긍정적 표현이 된 사례이다.

다음은 경제와 관련된 표어이다.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았다.

(예37)

- 체납자 신고하여 우리 경제 되살리자.
 - 정직한 자진 납세 함께 웃는 일등 사회
 - 납세의 씨앗으로 열매 맺는 행복한 복지사회
 -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세금으로
- 불필요한 충동 구매 기우는 가정 경제
 - 합리적인 소비 습관 가정 경제 일으킨다.

표어를 분석하면서 주변에 부정적인 표현이 의외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 표현을 긍정적 표현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4. 표어의 긍정적 표현을 위한 대안

긍정의 내용은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각과 해석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긍정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미래의 낙관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차원으로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를 바라보면서 단점을 언급하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개선할 소망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에 속한다. “글 좀 잘 써라” 대신에 “조금만 노력하면 글씨를 잘 쓰겠다.”라는 표현이 미래적 표현이다.

표어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 38)

- 방황 속에 순간 실수 평생 두고 후회한다. 전주지방검찰청 / 범죄예방위원회 전주지역협의회(2008. 1. 10. 전주 치명자산 입구)
 - 방황을 이기는 힘 밝은 평생 이끈다.

“방황 속에 순간 실수”처럼 염려스러운 현재의 모습이 전제되어 부정

적 표현을 만든다면 “방황을 이기는 힘”처럼 미래적이고 낙관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긍정적 표현을 만들 수 있다.

표어를 만들 때도 미래의 모습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할 때 긍정적 표현이 된다.

(예 39)

- 불날 자리 표시 없고, 불날 시간 예고 없다.(2006. 5. 17. 전주-순천 간 도로변)
- 화재장소 따로 없고 화재시간 예고 없다. (2006. 6. 1. 전주 완산소방서 앞)
- 불낼사람 따로 없다 너도나도 불조심(2006. 6. 4. 전주 전동성당 근처)
- 태우고 슬퍼말고, 미리살펴 재난 막자(2006. 5. 13. 전주 서신동) : 비극적 상황을 제시
- 화재는 계절 없고 불행은 예고 없다—전주 소방서—(2005. 10. 12. 전주 송천동 건지산 근처, 2006. 5. 4. 전주소방서 앞)
→화재 예방 있는 곳에 웃음 있고 행복 있다

(예 40)

- 어느 때나 불조심 어디서나 화재 예방
- 마음속에 불조심 생활 속에 불조심
- 아빠 꿩초 엄마 렌지 한번 관심 밝은 미래 (2006. 6. 7. 광주 풍암동)

(예 41)

- 내 작은 불조심
- 내 인생을 지켜줄 멋진 자세입니다.
- 매일 매일 내 인생에 보석같은 생활태도입니다.(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광고를 이용하여 패러디함)

(예 39)와 같이 미래의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여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보다는 (예 40), (예 41)처럼 긍정적 이미지를 그려보게 함으로써 발전적인 미래 모습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긍정의 미학이자 긍정의 표현학³²⁾이다.

5. 표현 교육의 방향

표현 교육은 인간에 대한 존중 의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중핵적으로 다루고 있는 언어활동도 인간 존중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지(임칠성·한창훈, 2005 : 258)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 교육 활동은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초점을 두는 일도 중요하지만, 표현이라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또는 결과물인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 감각, 사고 등을 회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감정, 감각, 사고를 회복하는 작업은 표어와 같은 공적인 표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이다. 표어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표어가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표어는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표어를 읽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인간은 사회 문화를 읽어 나가며 새로운 사회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춘 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표어는 사회 문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표어는 문화 속에서 표현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다. 단순히 표현자가 표현한 내용을 수용자가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표현에 힘을 달아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감동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수용자에게 호소하는 표어가 되어야 하며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표어가 되어야 한다.

생활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언어 사용은 학생들의 언어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문화가 전승되듯이 언어 사용 양상과 방법이 전승되기 마련이

32) 과거에 평가 용어로 “수우미양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秀優美良可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나타내는 “가”는 영어의 fail(낙제)에 해당한다. 영어의 fail이라는 용어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칭찬으로 평가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육에서 긍정적 표현은 의미 있는 표현이다.

다. 성인이 사용하는 언어, 문화로 사용하는 언어인 표어는 이 점에서 중요함을 더 한다.

듀이는 교육활동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학습자와 교육과정을 들고 있다. 학생은 아직 미성숙하고 미개발된 존재인데 반하여 교육과정은 성숙한 성인의 과거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의 목적, 의미, 가치, 신념체계와 같은 것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소의 상호 관련을 염두에 두고 교육활동을 파악할 때에 의미 있는 교육 이론이 가능하다(존 듀이 저, 박철홍 역 2005 : 32).

정재찬(2006 : 290)에서는 “언어의 사회성을 언어의 사회적 존재 구속성, 곧 언어의 불가역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언어는 사회를 바꾸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현이 언중의 의식을 바꾸며,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생명이 되는 말, 생명의 씨앗이 되는 밀알의 말이 필요하다.

언어는 전공 속에 있지 않다. 바흐친은 언어학이 사회 내의 기호를 연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소쉬르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기호의 속성이나 사회 내의 역할에 관한 논의에서는 상당 부분 그와 의견을 달리한다 (정재찬, 2006 : 300). 정재찬(2006)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흐친의 언어관을 평력하고 있다.

언어와 이데올로기를 개인의 의식에 자리매김하는 소쉬르의 개인주의적 접근에 반대하면서 바흐친은 어떠한 언어 행위도 전체 사회 내의 물질적 기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언어관을 편다.

이재기(2005 : 134)는 바흐찐의 견해를 인용하여 언어 공동체가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있다. 언어와 그 형태는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오래된 사회적 교섭의 산물이다. 그 결과 담화 공동체가 주체와 주체의 말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의 말이 담화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언어는 사회의 산물이며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인지적, 정

서적, 태도적 도구라는 언어관과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 입각하여 논의를 할 수 있다.

인지적 도구 측면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대안적 사고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정서적(정의적) 도구 측면에서는 심미적 언어 사용과 관련된 측면이고, 태도적 측면에서는 행동, 행위적 언어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동안 언어 사용은 개인적 차원의 사용과 감상에 초점을 두어 논의되었고 국어교육 역시 이 차원의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의 논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표어는 개인적 차원의 언어 사용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언어 사용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언어 사용이 표어이다. 표어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 문제가 표어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표어를 보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는 문제를 알 수 있다.

표어를 표현할 때, 표현 선택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아 중심적 표현에서 타인을 고려한 표현 선택,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표현 선택, 객관화 주관화하는 표현 선택, 긍정적 의도, 태도나 부정적 의도, 태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표현 선택, 공손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선택 등 언어 사용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거나 내재되어 있는 가치, 경험, 언어적 습관, 태도, 감수성 등의 작용으로 표현을 선택하는 쪽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표현하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표현 교육이 아니라 표현을 선택하는 데 관심을 갖는 표현 교육이 되어야 한다. 표현하는 문제에서 표현 선택의 문제로 교육이 구안되어야 한다. 최고선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표현을 선택하도록 계획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현 선택에 초점을 맞추려면 한 개의 텍스트를 제시하는 교과서 기술 방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텍스트를 제시하고 비교하면서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긍정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수 학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

서에 긍정적 표현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학습해야 할 긍정적 표현이 교육 내용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꿔 쓰기³³⁾를 통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바꿔 쓰기는 ‘관점의 전환을 통한 쓰기’이다. 표어를 긍정적 관점으로 바꿔 쓰는 연습을 통해 표현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표현의 장식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표어를 고쳐 쓰는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원한다면, 관점 전환을 통한 표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관점 바꿔 쓰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 교과서에서는 ‘관점 바꿔 쓰기’보다는 ‘장르 바꿔 쓰기’를 더 많이 다루고 있다. 패러프레이즈(Paraphrase)³⁴⁾를 쓰기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는 사례를 외국에서 많이 보게 된다. 우리도 이제는 바꿔 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꿔 쓰기는 시물을 고정된 시각으로 보지 않

33) 혼동하기 쉬운 개념인 다시 쓰기, 고쳐 쓰기, 바꿔 쓰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학사전(1997)에서 조차 이 세 용어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시 쓰기라는 용어는 흔히 ‘과거사 다시 쓰기, 여성사 다시 쓰기, 우리 고전 다시 쓰기’ 등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의 뜻이 ‘하던 일을 되풀이해서 또(표준국어대사전)’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다시 쓰기는 풀어서 쓴다는 개념이나 설명의 개념을 내포하면서 관점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나 정정의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기, 다시 듣기, 다시 읽기라는 말에서는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다시 쓰기는 반복하여 쓰되 새롭게 쓴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원작가나 다른 사람이 반복하여 쓰되 바로 잡아 쓴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고쳐 쓰기는 정정과 효과적 표현의 모색이라는 개념을 지닌다.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한다(표준국어대사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쳐 쓰기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효과적인 표현을 모색한다는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고쳐 말하기, 고쳐 쓰기라는 말은 가능하나 고쳐 읽기, 고쳐 듣기라는 말은 어색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고친다는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쳐 쓰기는 타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쓰기의 특성 때문에 스스로 고친다는 개념으로 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바꿔 쓰기는 내용을 달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관점을 달리하거나 의견을 달리하여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다’라는 개념이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거나 대신하게 한다(표준국어대사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꿔 쓰기는 관점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시점 바꿔 쓰기, 심정전 바꿔 쓰기, 인물, 사건, 배경 바꿔 쓰기, 갈래 바꿔 쓰기 등의 표현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34) 표절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 패러프레이즈 연습은 중요한 쓰기 활동 중 하나이다.

고,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 줄 수 있다.

말 한 마디가 나와 타인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부정적인 언어는 과거를 창조하고 긍정적인 언어는 좋은 열매를 창조한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사람들이 의식 중에 또 무의식중에 접하게 되는 것이 표어이다. 우리가 접하는 표어가 좀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어 국민들이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에 기여하고, 반대로 국민들이 매사를 긍정적으로 사고하여 표현의 열매가 긍정적이기를 기대해 본다.

표어는 사람들이 많이 불비는 장소, 교통의 중심지 등 변화한 거리에 많이 내 걸리듯이 전파력이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뀐 표어가 절실히 요청된다.*

* 본 논문은 2008. 6. 30. 투고되었으며, 2008. 7. 2. 심사가 시작되어 2008. 7. 29. 심사가 종료되었다.

▣ 참고문헌

- 강태완(1986), 동학사상과 운동의 메시지 분석 연구 : 격문, 패서, 방문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강태완(2002), “공공기관 표어의 언화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학보 46-1, 한국언론학회.
- 권순희(2001), 대화지도를 위한 청자지향적 관점의 표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권순희(2003), 부정과 긍정 표현의 말하기 효과—상거래 말하기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31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김계현(1997), 상담심리학, 학지사.
- 김치수·김명숙·장인봉 (1999), “신문광고 슬로건에 나타난 언어 현상 연구 : 우리나라 일간지 광고의 기호학적 분석”, 불어불문학연구 38-2, 한국불어불문학회.
- 네루 저, 과복희·남궁원 역(1999), 세계사 편역, 일빛.
- 망원한국사연구실(1988), 1862년 농민항쟁, 동녘.
- 목정민(2008), “욕 속에 독 있다?!”, 과학동아 vol.266, 동아사이언스.
- 문영진(2007), 동시대의 삶과 서사 교육, 한국문화사.
- 박기철(2002), “이미지 광고와 직접 반응 광고 효과 분석 비교”, 한국광고학보4-1, 한국광고홍보학회.
- 박영준 외(2006), 광고언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영준(2001), “기업 슬로건의 언어적 기법에 대한 분석”, 이중언어학 19, 이중언어학회.
- 박영환(1985), “표어의 형태와 의미”, 고려대 어문논집 24·25호,
- 박인기(2006),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상과 초등국어과 교과서의 성격”,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 박필(2004), 행복 그리고 성공을 만드는 언어, 국민일보.
- 벤 패터슨 저, 전상현 역(1994), 그리스도인과 일,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안신호·이상희(1988), 칭찬, 과제에의 가치 및 내재적 동기, 사회심리학연구2, 한국심리학회.
-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은주 역(1995), 의사소통의 사회이론, 관악사.
- 이용대 역 (1992), 내말은 그게 아니야, 사계절.
- 이원표(1996), “한국 대학생의 칭찬 화행에 나타난 공손법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

- 어교육2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이장호 (2000), 상담면접의 기초, 중앙직성출판사.
- 이재기(2005), 문식성 교육 담론과 주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이정찬(2006), 근대 전환기 작문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준 지음, 임형택 해제(2004), 문장강화, 창작과 비평사.
- 임칠성 · 한창훈(2005), “새로운 국어 교과서의 개발 전략 탐색”, 국어문학 40, 국어문화학회.
- 정상섭(2006), 공감적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찬(2006),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국어교육”, 제261회 전국학술대회 국어교육과 교과교육, 한국어교육학회.
- 홉킨스 저, 김동완 역(1985), 과학적 광고, 소담출판사.
- Beck, A. T.(1976),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 Hoeber.
- Blanck, P.D., Reis, H.T. & Jackson, L.(1984), The effects of verbal reinforcements on intrinsic motivation for sex-linked tasks, *Sex Roles* 10, 369-387.
- Chen, R.(1993), Responding to compliments : A contrastive study of politeness strategies between American English and Chinese speakers, *Journal of Pragmatics* 20.
- Denton, R. E. Jr.(1980), “The Rhetorical Functions of Slogans : Class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Quarterly* 28(3), 10-18.
- Dewey, J.(1980), *Art as Experience*, New York : Perigee Books
- Kamen-Siegel, L., Rodin, J., Seligman, M.E.P., & Dwyer, J.(1991), Explanatory style and cell-mediated immunity in elderly men and women, *Health Psychology* 10, 229-235.
- Lu, X(1999), “An Ide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of Political Slogans in Communist China”, *Discourse & Society* 10(4), 487-508.
- Peterson, C., Seligman, M.E.P., & Vaillant, G.E.(1988), Pessimistic explanatory styles risk factor for physical illness ; A thirty-five-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23-27.
- Seligman, M.E.P.(1990), *Learned Optimism :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 Pocket Book.

<초록>

표어의 긍정·부정적 표현을 통한 표현 교육 방향

권순희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표어를 분석함으로써 긍정적 표현교육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표어는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알리기 위해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표어는 짧은 문구이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강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언어 사용자들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밝은 면을 바라보는 긍정적 표현과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부정적 표현을 선택하게 하는 표현 교육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 사고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며, 언어 사용 윤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긍정적 표현을 위한 표현 장식을 논의함으로써 감정, 감각, 생명을 불러 일으키는 표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어를 텍스트 차원에서의 문식성, 사회 문화적 환경 차원에서의 문식성, 사회적 주체 즉 인간 차원에서의 문식성이라는 3차원적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전주지역, 2005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현수막으로 내걸렸던 표어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표어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직업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표어 표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긍정적 표어 사용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표현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연구하였다.

【핵심어】 표어, 긍정적 표현, 표현 교육, 문식성, 사회 문화

<Abstract>

Direction of Expression Education through Positive
and / or Negative Expressions of Slogans

Kwon, Soon-hee

The direction of positive expression education was discussed by analyzing slogans which could be easily caught in daily life. A slogan is a memorable brief motto or phrase used for expression of an opinion or contention by a social group. Slogan users sometimes use stimulating and extreme expressions for producing deep impressions to human recognition.

For the desirable direction of expression education, positive expressions and negative expressions should be comparatively discussed. Positive expressions are correlated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they are also desirable for ethics of language utilization. Through this study, a direction of expression education bringing about emotion, sensation, and life was suggested by discussing expression aspects for positive expression.

Slogans were analyzed in the three directions of literacy, text level, sociocultural environmental level, and human being level. Slogans expressed on placards from December, 2005 to June, 2008 in Jeonju province were analyzed. The necessity of positive expression of slogans and a desirable direction of expression education were studied by analyzing aspects of differently expressing slogans according to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with ideology and social attitude.

【Key words】 slogan, positive expression, expression education, literacy, socioculture